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1. 5. 22.(토) 조간	배포일시	2021. 5. 21.(금) 10:00
담당과장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동익 (044-215-4710)	담당자	박창규 사무관 (ckpark0916@korea.kr)

2021년 1/4분기 대외채권·채무 동향 및 평가

- ◇ '21.1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307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9억불 증가
- ◇ '21.1/4분기말 대외채무는 5,659억불로, 전분기 대비 증가폭 축소(+306→+210억불)
 - 비거주자 국내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주로 장기외채가 증가(4,002억불, +146억불)하였고, 단기외채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(+132→+63억불)하여 내용면에서 개선
- ◇ 최근 대외채무 증가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시각이 주된 요인
 -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타국 대비 투자매력이 높고, 해외차입 여건도 매우 양호
- ◇ 대외채무 증가에 불구,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수준
 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29.3%, +0.0%p)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37.1%, +1.2%p)이 소폭 상승하였으나, 과거 평균 및 다른 신흥국과 비교시 양호

□ (대외채권) 2021년 1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307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9억불 증가하였다.

- 정부·중앙은행·민간은행의 해외채권 투자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.

□ (대외채무) 2021년 1/4분기말 대외채무는 5,659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10억불 증가하였다.

-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657억불로 전분기 대비 63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4,002억불로 전분기 대비 146억불 증가하였다.

□ (순대외채권) 2021년 1/4분기말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은 4,648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180억불 감소하였다.

□ (외채 변동요인) 이번 분기중 대외채무 증가는 비거주자 국내채권 투자 등 장기외채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.

- ① 정부(+61억불) 및 중앙은행(+43억불)의 외채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,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* 등에 따라 외국인의 국고·통안채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.

* AA등급국 10년물 국채 수익률('21.3말, %) : (韓)2.08 (뉴질랜드)1.81 (英)0.85 (佛)△0.0

- ② 은행 부문(+66억불)은 외화증권 발행과 비거주자 외화예수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, 해외차입 여건 개선,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 확대 및 수출입 회복에 따른 자금 예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.

- ③ 기타 부문(+40억불)은 수출입 개선에 따른 기업의 무역신용 확대와 기업 M&A 자금 수요* 등에 따른 외화증권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다.

* SK하이닉스 외화증권 25억불 발행('21.1월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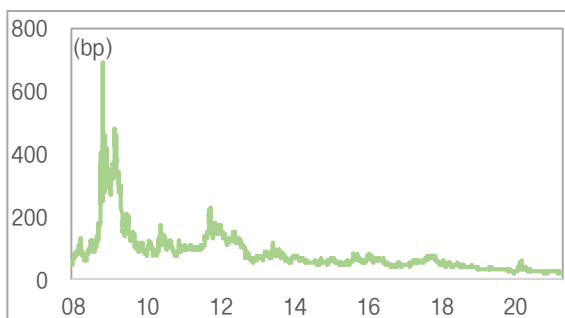
□ (평가) 최근 외채 증가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시각이 주된 요인이며,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.

- 특히,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투자매력을 유지함에 따라, 비거주자의 국고·통안채 투자가 이번 분기 중 외채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*하였다.

* 총외채 증가 210억불 중 비거주자의 국고·통안채 보유잔액 증가가 111억불

- 최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유지, 신용부도스왑(CDS) 프리미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·기업의 해외차입 여건도 매우 양호하다.
- 특히,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(외평채 5년물 기준)은 5.6일 19bp로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5.21일에는 18bp로 추가 하락하며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.

'08년 이후 CDS 프리미엄



최근 몇년간 CDS 프리미엄



□ (외채건전성) 외채 증가에 불구하고, 우리나라의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.

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29.3%, +0.0%p)과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37.1%, +1.2%p)이 소폭 상승하였지만, 과거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고, 다른 신흥국과 비교하더라도 양호한 편이다.

* 과거 10년 분기평균('10~'19년)/현재(%) : (단기외채비중)30.8/29.3 (단기외채비율)36.4/37.1

* 단기외채비율('20말, %): (터키)148 (아르헨)100 (말린)84 (남아공)51 (韓)36 (인나)3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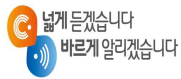
-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(4,523억불)과 대외채권(10,307억불), 4,000억불대 순대외채권(4,648억불) 등을 함께 감안할 경우 전반적인 대외건전성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.

□ (향후 대응)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정부는 자금 유출입 흐름과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< 대외채무 현황 >

구분	2008	2018	2019	2020			2021	전기비
				6월	9월	12월	3월	
총 외채(억불)	3,129	4,412	4,707	5,067	5,143	5,449	5,659	+210
단기외채(억불)	1,457	1,256	1,355	1,562	1,461	1,593	1,657	+63
장기외채(억불)	1,672	3,156	3,353	3,505	3,682	3,856	4,002	+146
단기외채/총외채(%)	46.6	28.5	28.8	30.8	28.4	29.2	29.3	+0.0%p
단기외채/보유액(%)	72.4	31.1	33.1	38.0	34.7	36.0	37.1	+1.2%p
대외채권(억불)	3,406	9,188	9,572	9,557	9,772	10,278	10,307	+29
순대외채권(억불)	277	4,776	4,864	4,490	4,628	4,828	4,648	△180

※ 통계 출처: 2021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1.5.21.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